

조국혁신당

책자형선거공보

남동구의회의원선거 남동구다 선거구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
열심히
사는 사람이
존중 받는
정치

3

박찬양

남동구의회의원 후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남동구의회의원선거 남동구 다선거구

1. 인적사항

기 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 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 력	경 력
3	조국혁신당	박찬양	남	1990.01.18 (36세)	직장인	인천대학교 글로벌법정경 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코리아씨키트 직원 (현)조국혁신당 인천광역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 산 상 황 (천 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87,881	87,881	해당없음	고지거부	해당없음	육군병장 (만기전역)	해당없음	해당없음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천원)				후보자전과기록
구분	구분	체납내역		
	납세액	체납액 누계 (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11,357	0	0	해당없음
후보자	11,357	0	0	
배우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계존속	신고거부			
직계비속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소명서

--



1 교통·생활 편의

- 인구 밀집도 당 최소 주차 확보 구역 조례 지정
- 공단 주차 단속 완화
- 치안 불안 지역 가로등 설치 및 단속 강화
- 횡단보도 앞 그늘막 설치 확대



2 일자리

- 민간자격증 유효기간 연장 권고(2년 → 3년)
- 사내 괴롭힘 단속 강화
- 노사문화 우수 기업 지원
- 구내 생산품 판매관 구축



약속

3 환경·행정

- 친환경 배달 지원
- 세수 및 사용 내역 투명화
- 디지털 민원 도우미 활성화



4 문화·관광

- 인천시 내 예술 문화 쿠폰 지원
- 인천대공원 내 페스티벌 추진
- 도서관 문화공간화 (공간 대여로 중고품 판매 및 예술활동 지원)
- 지역 내 24시간 대형 카페 유치
- 구내 마라톤 추진



6 생활복지·기타

- 병원 최소 다인실 병실 확보 조례
- 학내 안전 시스템 구축(학내 경찰 혹은 퇴임경찰관 취직 등)



5 청년·정착

- [핵심] 전세사기 방지 대책
전세 계약 사전 검토 시스템 구축
중개사 협조 방안(지원과 인증제 등)
전세신고 시 사기방지 안내 팸플릿 제공
- 주거지원 정책 개인 알람 (SH, LH공고 시 공유)
- [핵심] 결혼정보회사 대체제 지원
민간 공모형 청년 만남 프로그램 지원사업

열심히 사는 사람이 존중받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사회는 청년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세대, 저출산의 원인, 극단적인 투자에 몰리는 세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낮은 세대, 풍족하지만 만족을 모르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청년들이 쉬고 있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결혼을 미루는 것은 책임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투자에 매달리는 것은 탐욕 때문만도 아닙니다. 많은 청년들은 열심히 살아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지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렵고, 성실히 모아도 집 한 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청년의 불안은 청년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전세사기를 당하면 부모의 노후가 흔들립니다. 자녀가 직장에서 무너지면 가정 전체가 함께 불안해집니다. 청년의 일자리, 주거, 정신적 고통은 결국 한 가정의 걱정이 되고, 때로는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됩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나왔고 지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저는 제대로 쉬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었고, 제 가치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트, 스크린골프장, 뷔페, 주차안내, 아웃바운드 전화, 영화관, 인터넷, 면세점 계약직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 돈으로 채수와 편입에 도전했고, 어학연수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버티면 삶이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취업한 중소기업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견뎌야 했고,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오래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세사기까지 당했습니다. 다시 직장을 구한 뒤에도 처음 보는 동갑 직원의 텃세와 폭언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도 무리한 투자를 고민했습니다. 지금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더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도 제자리인 현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제 개인만 겪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공부하고, 버티는 사람이 전세사기로 무너지고, 직장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사회라면 정치는 그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전세사기로 청년과 가정이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에 혼자 참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최소한 손해 보지는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평범한 삶이 어디서 무너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버티고, 다시 시작해 본 사람으로서 주민의 삶을 대변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존중받는 정치.
제가 하고 싶은 정치는 바로 그것입니다.

박찬양 올림

진짜 인천 진짜 청년 진짜 직장인



Profile | 걸어온 길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인천 청학초 청학중 · 도림고 졸업

[경력] (현) 코리아씨키트 영업팀 직원 / (전) 인켈 해외영업팀 직원 / (전) 리서치앤리서치 인턴

[정당 및 정치 활동]

(현) 조국혁신당 인천광역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총선거기획특별위원회 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분과위원